

## 湯火傷 醫案 연구

<sup>1</sup>방성혜, <sup>2</sup>김홍균, <sup>1</sup>김남일\*

<sup>1</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up>2</sup>한국정통의학사연구소

### A Study of medical cases of burns

<sup>1</sup>Bang Sunh Hye, <sup>2</sup>Kim Hong-kyoon, <sup>1</sup>Kim Nam Il

*1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al history*

Burn is a malady that has tormented mankind for a while,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echniques of treating it has constantly improved. Detailed description of treatment methods of burns are mention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exts. To treat burns both medicines for internal and external use are needed, and appropriate first aid is necessary in the first stages. A total of eleven medical cases about burns could be found in the process of researching texts, and studying these 의안s indicated that burns were admirably cured with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ethods of treating burns.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methods between different schools could also be observed.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thods of burns is needed.

key wo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urns

### I. 서론

화상은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벼락이나 태양광선과 같이 자연계에서 입는 화상뿐 만 아니라,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불이나 끓는 물에 의한 화상,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인한 전기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에 이르기까지 화상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 왔다.

화상의 존재와 더불어 화상의 치료방법도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현대에는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전문병원을 찾아 양의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화상에 대해 의론과 치료술을 갖추어 오고 있었다. 화상은 한의학 문헌에서는 湯火傷으로 불리며, 종합의서나 구급의서 혹은 외

과문헌에 湯火傷에 관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 한의학 문헌에서 화상에 관한 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화상치료에 대해 현대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최<sup>1)</sup>등의 사순청량음의 효능, 원<sup>2)</sup>등의 침치료 1례, 그리고 김<sup>3)</sup>의 대황, 유향,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mailto:southkim@khu.ac.kr)

- 1) 최진용 외, 「피부화상으로 유도된 급성 부종성 폐손상에 대한 사순청량음의 효능」, 『대한본초학회지』 17-2, 2002.
- 2) 원승환 외, 「수부의 표재성 2도 화상의 침치료 1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2-1, 2005.
- 3) 김성배, 「대황, 유향, 몰약의 도포가 화상피부 치유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몰약의 화상 치료 효과가 보고된 정도이며, 그 외 문헌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상은 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기에, 화상의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탕화상의 의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탕화상의 醫案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탕화상은 한의학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훌륭하게 치료가 가능하며, 또 실제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안에 대한 연구가 탕화상의 한 의학적 치료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의안에 비해 탕화상의 의안은 상대적으로 희소하였다. 이렇게 비록 희소한 탕화상 의안이라도 수집하여 정리, 연구한다면 문헌적인 연구성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탕화상에 관한 기초지식의 정리를 위해 먼저 의론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탕화상을 치료한 의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탕화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먼저 외과전

문서적을 살펴보았다. 탕화상은 火氣가 피부를 손상시킴으로써 생기는 질환이고, 외과전문서적은 피부로 드러나는 여러 질환을 다루고 있으므로, 탕화상의 치료방법 역시 여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외과전문서적 중에 언급된 탕화상에 대한 치료방법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sup>4)</sup>

그런 후에 실제로 탕화상 환자를 치료한 의안들을 수집하였다. 탕화상 의안들은 외과전문서에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종합의서를 검색하여 본 결과 종합의서에서도 일부 의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안을 수집하는 것이기에 의안을 기록한 문헌인 의안집을 검색해 본 결과 여기에서도 탕화상 의안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외과전문서적, 종합의서, 의안집을 검색하여 수집한 탕화상 의안은 총 11개였다. 특정질환에 대해 시대를 거쳐 기록된 의안이 총 11개라면, 이는 다른 질환의 의안의 개수에 비해 희소하다고 생각된다. 이 의안들은 한 곳의 문헌에서만 보이기도 하였고, 여러 개의 문헌에 걸쳐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11개의 의안들이 나타나는 문헌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1> 탕화상이 수록된 의안’ 과 같다.

이 의안들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분석해 볼

	正 體 類 要	外 科 心 法	是齋 百 一 選 方	醫 方 類 聚	外 科 理 例	醫 部 全 錄	外科證 治 全 生集	外科 證 治全 書	續明 醫 類案
郝經 의안						○			
薛己 涼藥逼火毒 의안		○			○	○			○
薛己 火毒刑肺金 의안	○					○			○
薛己 火毒斫作 의안	○					○			○
薛己 火毒行于下焦 의안	○					○			○
薛己 火毒乘血分 의안	○					○			○
王洪緒 一婦小腿經燙 의안							○	○	○
王洪緒 一使女炭火燙 의안							○	○	○
王洪緒 一孩被滾湯澆腹 의안							○	○	○
錢國賓 의안									○
王璆 의안			○	○					

<표1> 탕화상이 수록된 의안

것인데, 이러한 분석에 앞서 탕화상의 치료에 대한 여러 문헌의 의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특정 질환의 의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탕화상의 치료법에 대한 문헌 연구 및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湯火傷 醫論 개괄

### 1) 정의와 용어

湯火傷이란 끓는 물이나 기름에 데인 湯傷과 불에 데인 火傷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문헌에는 탕화상이란 용어 외에도, 湯火燒燙, 火瘡, 火燒瘡, 湯燙瘡, 湯潑火燒, 湯潑火傷, 湯火燙, 湯傷 등의 용어로도 불리지만, 모두 같은 증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2) 탕화상의 원인

탕화상의 원인은 모두 外因이며 內因은 없다.

탕발화소리는 이 질환은 원래 내증이 없으며 모두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다. 탕화의 열이 극에 도달하면 독을 몰아 안으로 공격하게 된다. (湯潑火燒, 此患原無內症, 皆從外來也. 有湯火熱極, 逼毒內攻.)<sup>5)</sup>

이러한 종류의 창은 바로 이른바 밖으로부터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기혈이 안에서 손상된 것이 아니다. (此等之瘡, 正所謂意外之變, 非氣血內損也.)<sup>6)</sup>

이렇게 탕화상은 물에 덴 것이건 불에 덴 것이건 간에 모두 밖에서부터 침입한 火氣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오로지 외인만이 원인이 된다.

### 3) 탕화상의 증상과 예후

탕화상은 화독의 경중과 침입부위에 따라 여러 증상이 생긴다.

화라는 사물은 성질이 매우 급하여 능히 만물을 태워 순식간에 재로 만들 수 있으니 하물며 사람인들 어찌하겠는가? 중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가벼우면 험하게 되는데, 피부가 타고 살이 오그라들면 고통을 참기 힘들게 된다. (火之爲物, 性最急, 能燒萬物, 頃刻爲灰, 何況人乎? 重則至死, 輕則爲瘡, 皮焦肉卷, 苦痛難熬.)<sup>7)</sup>

화소창은 온몸을 태운 것이 마치 검은색과 같게 되면 구하기 힘들고, 만약 태운 정도가 가벼워 몸이 검게 되지는 않았다면 어찌다 혹시 구할 수는 있다. 그런즉 피부가 타고 살이 오그라들면 통증을 참기 어려우니, 온갖 계책과 처방을 쓴다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화독이 안으로 공격하고 치료함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火燒瘡, 遍身燒如黑色者難救, 或燒輕而不至身黑者, 獨或可療也. 然而皮焦肉卷, 疼痛難熬, 有百計千方用之而不驗者, 以火毒內攻, 而治之不得法也.)<sup>8)</sup>

가벼우면 해가 피부에 있고 중하면 해가 기육에 있게 되며 더욱 심하면 해가 장부에 있게 된다. 해가 장부에 있으면 많은 경우 사람을 죽게 만든다. (輕則害在皮膚, 重則害在肌肉, 尤甚者害在臟腑. 害在臟腑者, 多至殺人.)<sup>9)</sup>

이 증상은 건강하던 살이 갑작스럽게 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물에 데거나 불에 타서 피부의 통증이 생기고 겉으로 수포가 생기게 된다. 즉 장차 수포가 터지게 되면 독수가 터져 나와 독이 가벼워진다. 그 증상은 비록 외인이

4) 여러 외과전문서적 중에서 탕화상에 대해 다룬 문헌으로는 『外科理例』, 『外科正宗』, 『洞天奧旨』, 『外科啓玄』,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 『外科大成』, 『傷科補要』, 『外科證治全書』, 『外科證治全生集』 등이 있었다.

5) 眞實功, 『外科正宗』, p.475, 湯潑火燒.

6) 陳士鐸, 『洞天奧旨』, p.720, 湯蕩瘡.

7) 申拱辰, 『外科啓玄』, p.326, 火燒瘡.

8) 陳士鐸, 『洞天奧旨』, pp.719~720, 火燒瘡.

9) 陳士鐸, 上揭書, p.720, 湯蕩瘡.

긴 하나 형세는 반드시 경중을 나누어서 가벼운 자는 치료함에 바로 나올 것이다 ; 중한 자는 화독을 막아야 하는데, 열기가 내부를 공격하면 번조, 구역, 변비를 있게 하고, 심하면 신혼민절한다. (此證係好肉暴傷, 湯燙火燒, 皮膚疼痛, 外起燎胞. 即將胞挑破, 放出毒水使毒輕也. 其證雖屬外因, 然形勢必分輕重, 輕者施治, 應手而愈; 重者防火毒, 熱氣攻裏, 令人煩躁, 作嘔便秘, 甚則神昏悶絕.)<sup>10)</sup>

즉, 당화상이 발생하면 통증이 생기게 되며, 피부부를 상하면 혈거나 수포가 생기고, 기육을 상하게 되면 살이 오그라들고, 장부에까지 손상이 생기면煩躁, 作嘔, 便秘가 발생하며 심하면 神昏悶絕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4) 당화상의 응급조치

당화상을 입은 초기에 실시해야 할 응급조치가

있다.

처음 화상을 입었을 때에 차가운 소주 한 종지를 환자가 모르는 때에 가슴을 향해 한번 뿌려주면 처음에 흠칫 한번 놀라게 되는데, 그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뱉게 되면 내부의 열독이 내뿜는 숨을 따라서 배설되게 된다. 만약 번민함이 생기게 되면 갓 받은 어린아이의 소변 두 사발을 입에 부어준다. 연기로 인하여 죽으려 한다면 무를 찢어서 즙을 입으로 넣어준다. (初傷時, 用冷燒酒一鐘, 於無意中望患者胸前一潑, 被吃一驚, 其氣一吸一呵, 則內之熱毒, 隨呵而出矣. 如仍作煩悶者, 取新童便二碗灌之. 由煙熏欲死者, 搗水蘿卜汁灌之.)<sup>11)</sup>

대개 화상으로 손상되었을 때에는 ...(중략)... 처음에 불에 데었을 때 급히 불을 향해 환부를 쫓아주면, 비록 매우 아파 참기 힘들지라도 한 식경이 지난 후에 통증이 사라지게 되니 크게 효과가 있다. (凡火燒損, ...(중략)... 初被火燒, 急

외용제	구성 약재	출전
	青槐枝 綠豆粉 輕粉 油	外科精義
冷霜散	牡蠣 寒水石 明朴硝 青黛 輕粉 桐油	外科理例
火燒瘡方	黃蜀葵花 香油	外科啓玄
罌粟膏	麻油 罌粟花 輕粉	外科正宗
珍珠散	青缸花 珍珠 輕粉	外科正宗
如意金黃散	天花粉 黃柏 大黃 姜黃 白芷 紫濃朴 陳皮 甘草 蒼術 天南星	外科正宗
加味太一膏	肉桂 白芷 當歸 玄參 赤芍 生地 大黃 土木鱉 真阿魏 輕粉 槐枝 柳枝 血余 東丹 乳香末 沒藥 麻油	外科正宗
保膚膏	大蜂房 血餘 香油 黃蠟 大黃 朝腦	外科大成
清涼膏	鍛石 香油	外科大成
	雞子清 香油	外科大成
	鍛石 桐油	外科大成
菜菔膏	鮮蘿卜英	外科大成
救焚湯	黃葵花 大黃 滑石 劉寄奴 井中苔 絲瓜葉 蜜	洞天奧旨
二黃散	大黃 黃柏 鷄子清	洞天奧旨
毛粉散	豬毛 輕粉 白礬砂 麻油	洞天奧旨
歸蜡膏	當歸 黃臘 麻油	洞天奧旨
蚌津散	大蚌 冰片 麝香	洞天奧旨
太倉公方	井中青苔	洞天奧旨
秦眞人方	大黃 古石灰 滑石 麻油	洞天奧旨
	地榆 香油	外科證治全生集
	伏龍肝 人乳	外科證治全生集
黃連膏	黃連 當歸 生地黃 黃柏 薑黃 香油 黃蠟	醫宗金鑑

<표2> 당화상에 쓰이는 외용제의 종류

10) 吳謙, 『醫宗金鑑』, p.993, 外科心法要訣, 湯火傷.

11) 祁坤, 『外科大成』, p.631, 湯火傷.

向火更炙，雖大痛強忍之，一食久即不痛，神驗.)<sup>12)</sup>

이렇게 처음 탕화상을 입었을 때에 차가운 소주를 환자의 가슴에 뿌리고 호흡하게 하여서 열독을 배출시키거나, 혹은 어린아이의 소변이나 무즙을 입에 부어주어서 열기를 내려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화상을 처음 입었을 때에 급히 불을 향해서 환부를 쪼여주어 열기를 발산시키는 방법도 있다.

### 5) 탕화상의 치료

탕화상의 치료에 있어서는 내치법과 외치법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소의 증을 치료할 때엔 반드시 내외를 같이 치료하여야 화독이 쉽게 풀린다. (故治火燒之症，必須內外同治，則火毒易解也.)<sup>13)</sup>

탕화상은 외인이므로 외용제를 써서 피부의 화독을 풀어주어야 하며 또한 내복약을 써서 내부로 침입한 화독을 식혀주고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먼저 탕화상에 쓰이는 외용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2> 탕화상에 쓰이는 외용제의 종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탕화상에 쓰이는 내복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3> 탕화상에 쓰이는 내복약의 종류'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3> 탕화상에 쓰이는 내복약의 종류

내복약	구성 약재	출전
四順清涼飲	連翹 赤芍 羌活 防風 當歸 山梔 甘草 大黃	外科正宗
祛火外消湯	地榆 白芨 側柏葉 梔子 白芍藥 當歸 甘草	洞天奧旨
玄妙飲	黃蓮 花粉 元蓼 黑山梔 陳皮 桔梗 甘草 黃芩	傷科補要
護心丹	牛黃 血竭 辰砂 木耳灰 乳香 沒藥	傷科補要

### 6) 탕화상 치료 시 주의사항

12) 『醫方類聚』, p.217, 湯火傷.  
13) 陳士鐸, 『洞天奧旨』, p.720, 火燒瘡.

탕화상의 치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점은 여러 문헌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찬물이나 우물의 진흙에 담그는 것을 삼가야 하니, 열독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한기가 밖에서 속박시키니, 이로 인하여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慎用冷水并泥浸，致使熱毒伏於內，寒滯束於外，因而不救者多.)<sup>14)</sup>

무릇 탕화가 사람을 손상시켰을 때엔 찬물에 담그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하니, 화독이 심장을 공격하여 바로 죽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막기 위해서이다. (凡湯火傷人，最忌浸冷水中，恐防火毒攻心，有立斃之禍.)<sup>15)</sup>

이 증상은 찬물과 찬약에 담그거나 바르는 것을 가장 꺼려야 하니, 열독이 안으로 들어와 가벼우면 피육이 냄새나고 썩으며 중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호흡이 촉급해져, 많은 경우 구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此証最忌涼水涼藥浸敷，致令熱毒伏內，輕則皮肉臭爛，重則神昏氣喘，多成不救.)<sup>16)</sup>

처음부터 끝까지 찬물과 우물의 진흙에 상처를 담그는 것을 금해야 하니, 열독이 안으로 들어오고 한기가 밖에서 속박하니, 피육이 냄새나고 문드러지며 정신이 혼미하고 대변이 막히며 어깨를 들썩이며 호흡이 촉급해지면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初終禁用冷水并泥浸湯傷處，恐熱毒伏於內，寒滯束於外，致令皮肉臭爛，神昏便秘，端肩氣喘，多致不救.)<sup>17)</sup>

무릇 화상으로 손상된 경우 찬물로 씻는 것을 삼가 금해야 한다. 화상에 찬 기운을 얻게 되면 열기가 더욱 깊어져 뼈로 들어오게 되니, 사람의 근골을 무너뜨려 치료하기 어렵게 된다. (凡

14) 祁坤, 『外科大成』, p.631, 湯火傷.  
15) 錢文彥, 『傷科補要』, p.884, 湯火傷.  
16) 許克昌, 『外科證治全書』, p.996, 湯火傷.  
17) 吳謙, 『醫宗金鑑』, p.994, 外科心法要訣, 湯火傷.

火燒損，慎勿以冷水洗之。火瘡得冷，熱氣更深轉入骨，壞人筋骨，難瘥。)18)

탕화상 시에 절대로 찬물에 환부를 담그면 안된다. 만약 찬물에 환부를 담그게 되면 외부의 寒氣가 내부의 熱毒을 가두어 버려, 피부는 더욱 문드러지고 열기가 뼈에까지 침입하여 근골까지 상하게 되어 난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湯火傷 醫案 분석

이제 각 의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郝經 의안

『元史』 학경전에서 말하기를 : 經은 字가 伯常이고 선친은 潞州사람으로 택주의 능천으로 옮겨와 가문 대대로 유학을 업으로 하였는데 조상인 天挺과 元裕는 일찍이 유학을 좇아 배웠다. 금나라 말기에 아버지인 思溫이 하남의 노산으로 피난해 왔다. 하남에 난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움막에 숨어 있었는데 병사들이 불을 피우고 태우니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 經의 어머니 許씨도 역시 죽게 되었는데 經이 꿀에 채소절임의 차가운 즙을 섞어서 어머니의 이빨을 벌리고 부여주니 곧 어머니가 깨어났다. 이때 經의 나이가 9세로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元史』 郝經傳曰：經字伯常，其先潞州人，徙澤州之陵川，家世業儒，祖天挺元裕嘗從之學。金末，父思溫避地河南之魯山，河南亂，居民匿窟中，亂兵以火熏灼之，民多死。經母許亦死，經以蜜和寒菹汁決母齒飲之，即蘇。時經九歲，人皆異之。)19)

분석 : 전란 중에 병사들이 일으킨 화재로 인해 열기와 연기가 郝經의 어머니를 질식 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꿀과 채소절임의 차가운 즙이 호흡기로 침범한 열기를 식혀준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

상황에서 어린 郝經이 주위에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를 소생시킨 것이다. 채소절임의 즙을 먹인 것은 앞의 탕화상의 응급처치에서 살펴보았듯이 탕화상의 초기에 연기로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무즙을 먹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 2) 薛己 涼藥逼火毒 의안

馮氏의 아들이 화창을 앓았는데 자주 서늘한 약을 붙이더니, 새로이 배가 부풀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까지 더하여졌다. 내가 인삼패독산에 목통과 산치자를 가하여 다스리고, 외용약으로 측백엽을 초하여 가루낸 후 마유에 개어서 발라주니 점차 낫게 되었다. 일찍이 측백엽을 끓인 즙의 위에 뜨는 기름을 주사에 개어 바르니 더욱 효과가 있었다. 만약 서늘한 약을 사용하게 되면 화독이 안으로 들어와 많은 경우 구할 수 없게 된다.

(馮氏子患火瘡，驟用涼藥數貼，更加腹脹不食，予以人參敗毒散加木通·山梔治之，外以柏葉炒爲末，麻油調搽，漸愈。嘗用煮柏汁上浮脂，調銀朱塗之更效。若用涼藥，逼火毒入內，多致不救。)20)

분석 : 탕화상에는 차가운 약을 외용해서는 안되는데, 잘못하여 차가운 약을 붙여서 나타난 부작용에 인삼패독산 가감방을 사용하였다. 인삼패독산은 傷寒의 證을 치료21)하는 처방이다. 탕화상의 熱氣를 차가운 외용약이 가두어버린 상황이므로, 傷寒證에 쓰는 처방인 인삼패독산에 목통과 산치자를 가하여 외부의 한기를 풀어주고 내부의 열기를 식혀주도록 하였다. 측백엽은 涼血하는 작용이 있어 외용제로 사용되었다. 설기의 탕화상 의안 중에서 유일하게 외용제가 사용된 의안으로 내치법과 외치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20) 薛己, 『外科心法』, p.1079, 火瘡.

21) 人參敗毒散 治傷寒時氣 發熱頭痛 項強肢體煩疼 及傷風咳嗽 鼻塞聲重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川芎 赤茯苓 人參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薄荷少許 水煎服(許浚, 『東醫寶鑑』, p.386, 寒門.)

18) 『醫方類聚』, p.217, 湯火傷.

19) 『醫部全錄』, p.448, 376권, 外科湯火灸凍漆瘡, 醫案.

### 3) 薛己 火毒刑肺金 의안

한 남자가 추운 겨울철에 팔에 화상을 입어 통증이 생겼는데, 거친 기침과 발열이 생기니 이는 화독이 폐금을 상하게 한 증상이다. 인삼평폐산을 써서 치료하니 기침이 이내 그치게 되었다. 노동으로 인하여 다시 오한과 발열이 생기게 되니 이는 기혈이 허하기 때문으로, 팔진탕에 길경과 백지를 가하여 치료하니 증상이 물러났다. 다시 박계 3푼을 가하여 약력을 돕고 기혈을 따뜻하게 하니 문드러진 살이 터지면서 나왔다.

(一男子孟冬火傷臂作痛, 喘嗽發熱, 此火毒刑肺金之證, 用人參平肺散治之, 喘嗽乃止. 因勞又惡寒發熱, 此氣血虛也, 以八珍湯加桔梗, 白芷治之而退; 再加薄桂三分, 以助藥勢, 溫氣血, 壞肉潰之而愈.)<sup>22)</sup>

분석 : 화상의 열기가 폐를 침범하여서 기침, 발열의 증상이 생겼기에 폐에 화가 盛할 때 사용하는 인삼평폐산을 처방하였다. 인삼평폐산은 肺痿證에 쓰는 처방으로 상백피, 지모, 인삼, 지골피, 감초, 천문동, 적복령, 진피, 청피, 오미자 등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心火가 폐를 침범하여 생긴 폐위증에 기침과 구역, 한열, 도한이 나타날 때 사용<sup>23)</sup>한다. 이후 조리를 잘못하여 노동으로 생긴 오한과 발열은 기혈이 허해진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팔진탕 가감방을 사용하여 기혈을 회복토록 하였다. 또 生肌 작용을 돕고자 팔진탕에 박계를 가하여 기혈을 따뜻하게 해주어 완전히 치료되도록 하였다.

### 4) 薛己 火毒灼作 의안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채로 뜨거운 물에 허벅지를 데어서 살이 문드러지고 열이 생기며 갈증

이 나서 물을 마셔대고 맥은 홍삭하고 유력하였다. 이는 화독으로 병이 된 것으로 생지황, 당귀, 황금, 황련, 목통, 갈근, 감초를 써서 십여제를 복용케 하니 제증이 점차 물러났다; 또 인삼, 황기, 백출, 천궁, 당귀, 자감초, 작약, 백지, 모과를 쓰니 새살이 점차 채워졌다. 노동으로 인하여 홀연히 오한발열이 생기니 이는 기혈이 허하여 그러한 것이라 이에 인삼, 황기의 약에 오미자, 산조인을 가하여 사용하니 인정되었다. 한달 가량 후에 창이 낮게 되었다.

(一男子因醉被湯傷腿, 潰爛發熱, 作渴飲水, 脈洪數而有力, 此火毒爲患, 用生地, 當歸, 芩, 連, 木通, 葛根, 甘草十餘劑, 諸證漸退; 却用參, 芪, 白朮, 芎, 歸, 炙草, 芍藥, 白芷, 木瓜, 新肉將完. 因勞, 忽寒熱, 此氣血虛而然也, 仍用參, 芪之藥加五味子, 酸棗仁而安; 又月餘而瘡痊.)<sup>24)</sup>

분석 : 술에 취한 채로 화상을 입었으므로 內外가 모두 熱이 넘치는 상태라 볼 수 있다. 갈증이 나면서 맥이 홍삭유력한 것으로 實熱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생지황, 황금, 황련 등의 清熱涼血하는 약재로써 치료하니 제증이 물러났다. 이후에는 生肌를 위해 인삼, 황기 등의 약재를 사용하였다. 이후 노동으로 인해 오한발열이 생긴 것을 기혈이 허한 것으로 보아 인삼, 황기, 오미자 등의 약을 사용한 것이다. 탕화상을 입을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던 환자의 상태에까지 주의 깊게 관찰한 대목이 눈에 띈다.

### 5) 薛己 火毒行于下焦 의안

한 남자가 양쪽 팔에 화상을 입어 화끈거리며 통증이 있고 대소변이 불리하였으니 이는 화독이 하초로 전해진 것이다. 생지황, 당귀, 작약, 황련, 목통, 산치자, 적복령, 감초를 1제 쓰니 대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그 통증 또한 그쳤다. 이에 인삼, 황기, 감초, 백지를 쓰니 썩은 살이 사라졌고 또한 여러 제를 복용하니 새살이 생겨났다.

(一男子火傷兩臂燉痛, 大小便不利, 此火毒傳於下

22) 薛己, 『正體類要』, p.1232, 湯火所傷治驗.

23) 人參平肺散 治心火刑肺 傳爲肺痿 咳嗽喘嘔 痰涎壅盛 寒熱盜汗 桑白皮 二錢 知母 人參 地骨皮 甘草炙 各一錢 天門冬 赤茯苓 各八分 陳皮 青皮 各五分 五味子 二十粒 右剉作一貼 薑三 水煎服. (許浚, 『東醫寶鑑』, p.481, 咳嗽門.)

24) 薛己, 『正體類要』, p.1232, 湯火所傷治驗.

焦, 用生地黄, 當歸, 芍藥, 黃連, 木通, 山梔, 赤茯苓, 甘草 一劑, 二便清利, 其痛亦止; 乃以四物, 參, 芪, 甘草, 白芷而壞肉去, 又數劑而新肉生.)<sup>25)</sup>

분석 : 화상을 입은 부위는 팔이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대소변이 불리한 것이었다. 이를 화독이 하초로 전해진 것으로 보아서 목통, 치자 등의 약재로써 대소변을 청리시키니 통증이 그치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 사물탕에 인삼, 황기 등의 약재로써 生肌를 도왔다. 앞의 탕화상의 증상과 예후에서 ‘熱氣攻裏, 令人煩躁, 作嘔便秘’ 를 살펴보았듯이 탕화상의 열기가 내부에까지 들어가 대소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치료한 것으로서, 이론과 실제의 임상이 부합되는 중요한 의안이다.

### 6) 薛己 火毒乘血分 의안

한 부인이 끓는 물에 가슴 부위를 데여서 크게 문드러졌는데, 두 달이 지나도 살이 수렴되지 않고 맥이 흥대하며 무력하였으며, 번조 발열 증상이 있으며 오후에 증상이 더욱 심하였다. 이는 음혈이 허한데 화독이 타올라 병이 된 것이니, 사물탕에 시호, 목단피를 가하여 사용하니 열이 물러나고 저절로 서늘해졌다; 다시 소요산에 진피를 가하여 음혈을 키우고 비위를 건강하게 하니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생겨났다.

(一婦人湯傷胸大潰, 兩月不斂, 脈洪大而無力, 煩躁發熱, 日晡益甚, 此陰血虛火毒乘之而爲患耳, 用四物湯加柴胡, 丹皮, 熱退自涼; 更用逍遙散加陳皮以養陰血壯脾胃, 腐肉去而新肉生.)<sup>26)</sup>

분석 :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었는데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문드러진 기육이 수렴되지 않았고 또 맥이 흥대하지만 무력하였기에 이를 陰血이 虛한데, 火毒이 더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물탕으로써 음혈을 보하고 시호, 목단피로써 청열시켰다. 소요산에 진피를 사용한 것 역시 음혈을 기름과 동시에 비위를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였다.

25) 薛己, 上揭書, p.1233, 湯火所傷治驗.

26) 薛己, 上揭書, p.1233, 湯火所傷治驗.

### 7) 王洪緒 一婦小腿經燙 의안

한 부인이 종아리에 탕상을 입어서 의사가 빙편을 눈 녹은 물에 개어 붙였는데 한시각도 지나지 않아 종아리가 한 말 가량 부풀어 오르게 되고 통증이 극에 달아 참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내가) 말하기를 종아리를 데인 것이 다행이다. 만약 허리나 배를 데었다면 독이 안으로 들어가 구하여 돌이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유를 곱게 갈아 기름에 개어 환부 위에 발라주니 반시각도 지나지 않아 통증이 그쳤고 다시 여러 차례 발라주니 완전히 낫게 되었다.

(一婦小腿經燙, 醫用冰片研雪水敷之, 不一刻, 腿腫如斗, 痛極難忍. 曰: 幸在小腿, 若腰腹間, 過毒入內, 難挽回矣. 以地榆研細, 調油拂上, 半刻痛止, 再拂數次全愈.)<sup>27)</sup>

분석 :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눈 녹은 물을 바르자 그 부작용으로 종아리의 부종이 심해지며 통증이 극에 달하였다. 이에 지유를 붙이자 제반 증상이 호전되었다. 지유는 涼血 작용을 하므로 탕화상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 이 의안은 오치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을 외용제만으로 치료한 내용이다. 이는 앞의 탕화상의 주의사항에서 살펴보았던 ‘熱毒伏於內, 寒滯束於外’ 의 오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임상례이다. 외용제 만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탕화상의 열기가 다행히 내부에까지 침입하지는 않아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8) 王洪緒 一使女炭火燙 의안

한 하녀가 탄화에 발을 데어 발등에 한 구멍만큼 문드러졌다. 복롱간 가루를 젖에 개어 붙이니 3일이 지나지 않아 나았다.

(一使女炭火燙, 足背爛一孔, 以伏龍肝散, 乳調敷, 不三日而愈.)<sup>28)</sup>

27) 王洪緒, 『外科證治全生集』, p.788, 醫案.

28) 王洪緒, 『外科證治全生集』, p.788, 醫案.

분석 : 복룡간은 성질이 따뜻하고 癰腫毒氣를 소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왕홍서는 탕화상에는 지유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만약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의 이유로 潰爛不斂한다면 복룡간을 바르도록 하였다.<sup>29)</sup> 하나의 발등이 문드러진 상태이기에 지유보다는 복룡간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乳人乳를 가리키는 것으로 生肌作用을 돕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9) 王洪緒 一孩被滾湯澆腹 의안

한 아이가 끓는 물에 배를 데였는데 통증으로 인하여 굶어서 피부를 터트렸는데 마유를 환부에 1번 바르니 통증이 그쳤다. 지유를 가루내어 말려서 터진 자리에 발라주자 다음날 새살이 생겼고 터지지 않은 부위는 완전히 나왔다.

(一孩被滾湯澆腹，因痛，抓破皮，麻油拂上一次，痛止。以地榆末乾糝破處，次日肌生，未破者全愈。)<sup>30)</sup>

분석 : 이 의안 역시 지유를 사용하였는데 지유를 외용하는 것만으로도 화상에 치료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麻油는 그 자체로도 瘡腫에 치료효과가 있지만 지유가루가 환부에 잘 부착되도록 하는 역할도 함께 해 주는 것이다.

### 10) 錢國賓 의안

내가 수창에 가고자 하여 여관에 머물렀는데 옆방의 사람이 고통에 소리치는 것이 들려 밤에 잠을 편안히 잘 수 없었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 하인이 끓는 물 한 동이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손님에게 주어 얼굴을 씻게 하였는데 그 아들이 동이를 붙잡은 후에 낡은 동이의 바닥이 떨어져 끓는 물이 아

29) 湯火傷者，乃好肉暴經湯澆，火燒，赤腫，急用地榆磨細如面，麻油調敷，其痛立止。如失治潰爛不斂者，取灶心黃土名伏龍肝，入炭火煨紅，水飛晒乾研細，人乳調敷，數次即愈。(王洪緒，上揭書，p.766，湯火傷。)

30) 王洪緒，上揭書，p.788，醫案。

들의 머리로 쏟아졌는데 지금 얼굴이 붓기가 한 말그량이 되어 얼굴과 눈이 모두 편평하게 되니 7일이 되도록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내가 곧 바로 가서 보니 온 방에 냄새가 가득하였다. 하 고초 1근을 가루내어 향유에 개어 부은 자리에 발라주기를 두텁게 펴발라 주었더니 곧 통증과 냄새가 그치게 되고 3일 후에 붓기가 빠지고 8 일 후에 딱지가 떨어졌고 장으로 만든 음식을 금기시켰다. 얼굴에 검은 자국이 남았는데 여관 주인이 내 말대로 약으로 치료하니 나왔다. 후에 내가 돌아가니 그 아들이 사례하였다.

(錢國賓曰：余欲之遂昌，宿旅次，聞隔房人呼痛，夜不安枕。次日問店主，對曰：小價提滾水一桶上樓與客洗面，其子拿盆後上，舊桶底脫，滾水灌子之頭，今腫如斗，面目皆平，七日不食矣。余即往視，滿室皆臭，用夏枯草一斤爲末，以香油調腫處，濃敷上，即時止痛止臭，三日消腫，八日痂落，切忌食醬料。面有黑斑，店主如言藥治而愈。後余回，其子叩謝。)<sup>31)</sup>

분석 : 뜨거운 물에 얼굴을 데어 생긴 화상으로 부종과 통증이 심하고 살이 썩어 악취가 심한 것을 치료한 의안이다. 하고초는 해열작용을 하므로 탕화상의 외용제로 사용되었다. 이 의안 역시 외용제만으로 탕화상을 치료한 내용이다.

### 11) 王璆 의안

탕화상에 혈어서 농이 생기고 문드러져서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李 모씨의 안무방이다. 우피교를 조금씩 불 위의 끓는 물에 뽕뽕하게 녹여 개의 털을 잘라서 우피교에 섞어 얇은 비단에 발라 덮으면 바로 딱지가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진다. 吳內翰의 집의 여종이 밤에 밥을 짓다가 가마솥이 뒤집어져 허벅지와 무릎에 화상을 입었는데 밤이라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자 이미 살이 터져서 문드러졌다. 이것을 사용하여서 치료하니 낫게 되었다.

(治湯火傷，瘡膿爛，痛不可忍者。李莫安撫方。牛皮膠，入少湯於火上溶稠，狗毛剪碎，以膠和毛，

31) 魏之琇，『續名醫類案』，p.336，湯火傷。

攤軟帛封之，直至痂脫不痛。吳內翰家婢，夜炊米，釜翻傷腿膝，以夜不敢曰，比曉，已潰爛，用此治之而愈。<sup>32)33)</sup>

분석 : 우피교는 약간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養血하는 작용을 한다. 탕화상으로 손상된 기육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기혈이 손상부위로 잘 공급되어야 하기에 養血하는 우피교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기름이 아닌 비단에 외용제를 발라 환부에 덮어주었는데, 앞의 의안들은 가루형태의 외용제이기에 기름에 개어 사용하였지만, 이 의안에서의 우피교는 이미 끈적끈적한 형태이므로 거즈의 역할을 하는 비단에 발라 사용한 차이점이 있다. 이 의안 역시 외용제만으로 탕화상을 치료한 내용이다.

#### 4. 湯火傷 醫案 고찰

탕화상에 관한 11개의 의안을 통해 응급처치, 내치, 외치, 오치 등에 관한 치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응급처치로는 채소절임의 즙을 복용시킨 것, 내치로는 열을 꺼주는 탕약이나 생기를 위한 탕약을 복용시킨 것, 외치로는 화독을 풀어주는 외용제를 사용한 것, 오치로는 탕화상 초기에 차가운 약을 바른 것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탕화상은 외인으로 인한 증상이기에 여러 의안에서 외용제가 사용되었다. 설기와 학경의 의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의안들은 외용제만으로 탕화

상을 훌륭히 치료한 내용들이다. 이는 탕화상의 치료에 있어서 외용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1개의 의안 중에서 특히 설기의 의안 5가지와 왕홍서의 의안 3가지의 내용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설기는 설기학과와, 왕홍서는 전생학과와 의 대표의가로 각각의 치료사상의 차이점이 탕화상 의안에서도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설기는 薛己學派의 대표의가이며 설기학과란 외과치료에 있어서 內治를 위주로 하였고 托裏, 和解, 榮衛, 生肌止痛 등의 방법을 주요 치법으로 주장하였으며 특히 脾胃를 조리하는 것을 주장한 외과학과의 하나이다. 설기는 외과의 내치법 중에서 비위를 조리고 元陰元陽을 배양하는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비위를 중요시하고 신의 명문을 중요시하여 육미환, 팔미환, 육군자탕, 보중익기탕 등의 처방을 주로 사용하였다.<sup>34)</sup>

왕홍서는 全生學派의 대표의가이며 전생학과란 針과 刀를 이용하는 수술법의 남용에 반대하였고 針刀 대신에 消法을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외과질환을 음양으로 분류하여서 특히 음증의 치료를 중시한 학파이다. 왕홍서는 消, 托, 補法 중에서 특히 消法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음증에는 소법을 사용할 때에 溫和寒凝消散法을 써야지 清熱解毒消散法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시대적인 순서로는 薛己學派가 먼저 생겨났으며 그 후 正宗學派를 거치면서 全生學派가 생기게 되었다. 설기학과나 정종학과 모두 내치법과 외치법을 중요시하였으며 내치법 중에서는 특히 보법을 중요시한 공통점이 있다. 정종학과에 이르러서는 외치법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그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 그런데 외치법 중에서 침과 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나친 침습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낳게 되자 이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전생학과가 생기게 되었다. <sup>36)</sup>

설기는 내치를 위주로 하였고 보탁하는 방법을

32) 王璆, 『是齋百一選方』, p.187.

33) 이 의안은 『醫方類聚』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마치 『太平聖惠方』에 실린 의안처럼 보인다. 『醫方類聚』, 194권, 고약문, 탕화상문에서는 『太平聖惠方』에 언급된 탕화상의 여러 처방들을 인용하면서 “又方. 纔被湯火所傷, 取狗毛碎剪, 洋膠和之, 便徧於瘡上封之. 壹封後至痂落不易, 亦不痛, 甚良. ○是齋醫方, 治湯火傷瘡, 膿爛痛不可忍者, 李莫安撫方. 牛皮膠, 入少湯於火上溶稠, 狗毛剪碎, 以膠和毛, 攤軟帛封之, 直至痂脫, 不痛. 吳內翰家婢, 夜炊米, 釜翻傷腿膝, 以夜不敢曰, 比曉, 已潰爛, 用此治之而愈.”라고 기재하였다. 하지만 『太平聖惠方』, 68권, 치탕화창제방문에 의하면 “又方. 纔被湯火所傷, 取狗毛碎剪, 洋膠和之, 便徧於瘡上封之. 壹封後至痂落不易, 亦不痛, 甚良.”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吳內翰家婢를 치료한 의안은 앞선 狗毛를 사용하는 처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 덧붙여진 것이며 『太平聖惠方』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고, 검색 결과 『是齋百一選方』에서 이 의안을 찾을 수 있었다.

34) 陳大舜 외, 『中醫臨床醫學類派』, pp.110~115.

35) 陳大舜 외, 上揭書, pp.119~122.

36) 陳大舜 외, 上揭書, pp.110~122.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오로지 외인만이 존재하는 탕화상에도 주로 내치법으로 치료하였다. 오치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도, 탕화상의 초기에도, 그리고 치료 말기에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도 모두 내치법으로 치료하였고 외용제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치료말기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보법으로 치료를 한 것은 그가 비위를 중요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왕홍서는 소법을 중요시하였다. 초기에 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기에 주로 외용제를 이용하여 화독을 몰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3개의 의안 모두 외용제만으로 탕화상을 치료하였다. 소법을 위주로 치료하였기에 탕화상의 화기를 잘 소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기의 의안과 같이 치료 말기에 보법을 사용하여 치료후유증을 고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설기는 탕화상을 찬 약으로 오치한 것을 내복약을 위주로 치료하고자 하였지만 왕홍서는 오치한 것에 대해서도 외용제로 치료하였지 특별한 내복약은 처방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의가의 치료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 보다는 각자의 치료의 장점을 잘 취합하여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료 초기에는 외용제를 사용하여 적극적인 소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 말기에는 보탁법을 실시하여 기유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II. 결론

湯火傷에 관한 의안을 통해 한의학에서의 탕화상 치료방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湯火傷이란 湯傷과 火傷을 합쳐 일컫는 말로 외부의 火氣에 의해 皮肉을 손상당하는 것이다. 火毒의 熱氣가 심한 경우는 장부에까지 손상이 미칠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탕화상을 치료할

때에는 외용제와 내복약을 사용하여 피부의 열독을 풀어주며 내부로 침입한 화독을 식혀주고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탕화상 초기에 찬물에 환부를 담귀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문헌에 나타난 탕화상 의안을 수집하여 본 결과 총 11개의 의안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의안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 탕화상의 응급처치, 내치, 외치, 오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또한 학파간의 차이에 따른 치료방법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한의학의 탕화상 치료에 관한 의론이 정교하다고 생각되며, 탕화상 의안들 또한 이러한 의론을 잘 실현하면서 치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탕화상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의 여러 치료기술들은 지금까지도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가능성이 있다. 화상의 초기부터 잘 치료하여 피부이식에까지 이르지 않고도 피부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수한 치료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탕화상의 외용제, 내복약 등에 관한 더 많은 연구와 임상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 IV. 참고문헌

1. 眞實功, 『外科正宗』,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2. 汪機, 『外科理例』,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3. 陳士鐸, 『洞天奧旨』,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4. 申拱辰, 『外科啓玄』,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5. 吳謙, 『醫宗金鑑』, 법인문화사, 2006년, 서울.
6. 祁坤, 『外科大成』,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7. 『醫方類聚』, 의성당, 1993년, 서울.
8. 錢文彥, 『傷科補要』,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9. 許克昌, 『外科證治全書』,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10.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66년, 서울.
11. 『醫部全錄』, 대성문화사, 1986년, 서울.
12. 薛己, 『正體類要』, 중국중의약출판사, 1997년, 北京.

13. 薛己, 『外科心法』, 중국중의약출판사, 1997년, 北京.
14. 王璆, 『是齋百一選方』,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91년, 上海.
15. 『太平聖惠方』, 한성사, 1979년, 서울.
16. 王洪緒, 『外科證治全生集』, 화하출판사, 1997년, 北京.
17. 魏之琇, 『續名醫類案』, 상해고적출판사, 1991년, 上海.
18. 陳大舜 외, 『中醫臨床醫學類派』, 중의고적출판사, 1999년, 河北.
- 19.
20. 최진용 외, 「피부화상으로 유도된 급성 부종성 폐손상에 대한 사순청량음의 효능」, 『대한본초학회지』 17-2, 2002.
21. 원승환 외, 「수부의 표재성 2도 화상의 침치료 1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2-1, 2005.
22. 김성배, 「대황, 유향, 몰약의 도포가 화상피부 치유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